

[ 사회 ]

■ 르포 - 흑산초교 흥도분교장의 '찾아가는 과학교실'

“과학놀이 매일 하면 참 좋겠네”

풍향·풍속계 만들며 다양한 기상실험

“마땅한 놀거리 없었는데 너무 신나요”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서있는 '흑산초등학교 흥도분교장'. 27명의 아이가 꿈을 키우고 있는 외딴섬 작은 학교가 23일 '찾아가는 과학교실'로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흑산도 기상대 소속 김문용(36) 예보사·이정(34) 장비주무관이 작은 꾸러미를 들고 교실에 들어서자 호기심 어린 눈길이 일제히 꾸러미로 쏠렸다. 김 예보사가 꾸러미를 풀고 '풍향·풍속·풍기대(風旗臺) 모형'과 '탱탱볼' 재료를 꺼내 놓자 조용하던 교실은 이내 탄성으로 시끌시끌해졌다.

대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만민이 이승은(13·6년)양이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이며 꼼꼼하게 모형을 맞추어 나가자 스티로폼 조각들이 점차 입체적으로 모양새를 갖추었다.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풍기대'를 완성하자 아이들이 교실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질러댔다.

김 예보사가 바람이 부는 이유와 바람의 다양한 이름에 대해 설명하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모형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교실 한 편에서 '탱탱볼' 재료가 든 종이컵을 짓가락으로 '휘휘' 젓던 저학년 아이들도 겁 속에 든 재

료들의 변화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겁 속에 담긴 것은 PVA(폴리 비닐 알코올)와 비누·의약품 원료로 쓰이는 붓사, 그리고 물. 물에 녹은 붓사가 PVA로 스며들자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변해갔다.

한 시간 가량의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탱탱볼을 바닥에 튕겨보며 신기해했다. 실험을 돕던 5명의 교사도 애들 마냥 즐거움을 표정이었다.

1·2학년 담임인 강경자(여·47) 교사는 "작은 섬이라 아이들이 마땅히 놀 곳도 없고 학교 여건상 복식 수업을 하느라 과학 실험을 하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상과학과 관련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흑산초등학교 흥도분교장 학생들이 흥미진진한 표정을 지으며 '풍기대'를 만들고 있다. 흑산도 기상대의 '찾아가는 과학교실'은 낙도 어린이들에게 날씨와 과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일가족 3명 연탄가스 동반 자살

일가족 3명이 연탄가스에 중독,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전 8시30분께 목포시 옥암동 W 아파트에서 집주인 홍모(여·36)씨가 둘째(11)·셋째 아들(5)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근아들(14·중 2년)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실내 설치된 이동식 연탄난로의 연통이 창문을 통해 방으로 연결됐고, 창문 틈에는 연기가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이박스로 밀폐돼 있었다. 발견 당시 연탄난로는 피워져 있는 상태로, 방안에서는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

홍씨 등이 숨진 곳은 아파트 부엌 옆에 있는 방으로 뒤 베란다 다음도

큰아들은 이날 학원에서 새벽 1시에 돌아와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으

며, 공무원인 남편(39)은 회사에서 당직근무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홍씨는 거실에 '사랑하는 아들이 너가 더 바르게 자라주면 하늘에서도 행복할 것 같다'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퍼부미용실을 운영하는 홍씨가 최근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두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롭 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 (농성동).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이 기회! 개강 5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광주 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여수 '바다 사막화' 비상 '갯녹음 현상' 첫 확인

바닷속이 하얗게 변하며 황폐화되는 '갯녹음 현상'(白化現象)이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여수해역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가 25일 발표한 '여수시 해조류 서식 환경 실태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 남면 소리도 덕포와 삼산면 거문도 죽촌 해역에서 '갯녹음 현상'이 발견됐다.

연구소 측은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여수해역을 대상으로 해조류 서식 환경을 조사한 결과 '바다 사막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갯녹음이 발견된 해역은 지난 1995년 7월 유조선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소리도 덕포 해역 16ha와 거문도 죽촌 해역 54ha 등 70ha에 달한다.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정밀조사를 실시하면 갯녹음 발생지역이 훨씬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갯녹음 발생 지역을 복원하기 위한 해중림(海中林)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갯녹음(白化現象)=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칼슘이 어떤 원인에 의해 고체 상태로 변해 흰색으로 보이는 현상. 갯바위에 분홍색·흰색을 띤 다양한 무늬의 흰색 물질이 달라붙어 전복·성게류 등 각종 어패류와 해조류가 죽어간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말 제주에서 맨 처음 발견됐으며, 1990년대 말 경상북도 영덕군과 포항·영일만 일대의 동해안까지 확산됐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칼슘의 양 및 수온 변화에 따른 탄산칼슘의 용해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술취해 후배 공기총 살해 도주

25일 오후 7시20분께 순천시 해룡면 대현리 김모(51)씨 집에서 김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안모(36·광양읍 목성리)씨를 공기총으로 쏘 숨지게 한 뒤 도주했다.

목격자 정모(48·순천 해룡면 선월리)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고향에 놀러온 안씨와 이웃 주민 2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집안에서 공기총을 꺼내와 자신이 키우던 개를 쏜 뒤 이를 달리는 안씨의 가슴에 공기총 1발을 쏘았다.

김씨는 함께 술자리를 했던 이웃주민들과 함께 안씨를 순천 성가톨릭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씨가 병원에

서 사망하자 종적을 감췄다.

발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5.5mm 구경으로 사용 등록조차 하지 않았으며, 불법개조해 화력을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력반과 형사기동대, 방법순찰대 등 2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순천면 일대에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김씨의 뒤를 쫓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총기총 관련 사상(死傷) 사건은 5건, 경찰에 신고된 공기총은 1만7천여정이며 이 중 9천여정은 개인이 보관중이다.

5년간 자녀 폭행 '비정한 아버지' 구속

아들 먹이려한 음료 독극물 조사

광주 북부경찰청은 25일 5년여 동안 자녀를 폭행해 온 노모(45·광주시 북구 중흥동)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에 자신의 집에서 아들(14)이 가출한 아내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구타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들과 딸을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특히 노씨가 아들에게 마실 것을 강요한 음료에 독극물(유해물

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확한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의 부인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지난 2003년 가출했고, 딸(18·고2년)도 학대를 이기지 못해 2년 전 집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아들은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은 지난해 279건이며, 올해 현재 80건이다. /이종형 기자 golee@

햇살 눈부서 대체로 맑겠다. 4월 26일 (음 3월 10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ju.

카센터 주인 살해 고교생 셋 검거

해남 경찰청은 25일 해남 모 고교 1학년 이모(16)군 등 고교생 3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 군 등은 지난 24일 새벽 3시35분께 해남군 송치면 H카센터 앞 도로에서 카센터 주인 박모(6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출 후 용돈이 떨어지자 박씨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완강히 저항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 없이 해남 모 교회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박씨가 카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매점에서 물건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던 중 이날 오후 인근 바닷가 등굴에서 은신중이던 이 군 일행을 검거했다. /해남=박정목기자 jopark@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파행 해결 위해 '교수·학생 공동위' 구성

한 교수의 '아줌마 비하 발언'과문 이후 약탈행위로 치닫고 있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파행사태 해결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위가 구성됐다.

25일 대학원에 따르면 원생들은 대학원의 목소리를 단일화해 외부에 알리기 위한 조직으로 '문화전문대 교수·학생 공동위'를 구성, 정경운 교수에 대표를 맡겼다.

공동위에는 2명의 교수가 더 참여키로 했으며 학생 측에서는 지난해와 올해 입학한 1·2기생 각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쟁점에 대한 대학원의 입장을 정리, 대학본부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M교수의 '아줌마 비하 발언'

으로 촉발된 대학원 파행사태는 원장·부원장 보직사퇴, 문제의 발언을 한 교수 사직처리, K교수의 학생 성희롱 의혹, 학생들의 단식농성에 이어 학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이어졌다.

2학년생 18명과 1학년생 3명 등 21명은 최근 대학원의 만류에도 집단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2학년생의 경우 전체 28명 중 지난 3월 학기 초 자퇴한 2명과 휴학한 7명, 그리고 최근 휴학신청한 18명 등 모두 27명이 학업을 중도 포기, 단 1명의 학생만 남게 됐다. 3명이 휴학신청한 1학년생은 27명이 계속 학업 중이다. /황태준기자 hwangtae@kwangju.co.kr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공무원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수강률 1위! 만족도 1위! 합격률 1위! - 새로운 도전 .....이젠 한빛이 경쟁력이다. 79금 공무원전강좌.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호텔급 학원! 최강의 프로강사진. 누가 뭐래도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이구동성! 한빛이 최고! 개강 > 5월 1일 (주/야간반).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062) 234-0234. 지재학원: 김영편인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262-3553).